

제 1장 고뇌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합1:1-4) 9/12/09

하박국서와 하박국에 대하여

▶ **하박국**: 극진히 사랑을 받은 자(cordially embraced one)

● **활동 시기**: 유다가 갈대아(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때(BC 605년경) 전후(1:6) 여호야김 왕 시대(유다의 끝에서 3번째 왕)

● **시대상황**: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함.

📖 주 제;

1) 불의한 시대를 사는 의인의 고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불의를 보고만 계시느냐는 항의.

2)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일시적으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이 불의로만 가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간다.

1.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다.(시93:1, 97:1, 99:1 등)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진실함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다.(시129:4, 96:13) 그런데 이 세상의 실상은 어떠한가?

1) 로마서1:18-32

2) 딤후3:1-5

2. 세상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엡2:2-3, 고후4:4)

3.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시1:6)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시73:1-3, 16)

4. 옳게 살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고 돌아보아할 자들이다.

1) 약자, 힘없는 자(눅18:3,7)

2) 순교자(계6:10)

3) 장애인, 고아, 과부, 나그네(요9:3, 욥10:2)

5. 세상이 그러니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도 없다. 세상을 개혁하자니 힘이 부친다. 항의만 하다가, 욕만 하다가 갈 수도 없다. 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박국은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2)

6. 예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마 5:13-16)

세상의 (), ()의 소금

경계해야 할 두 가지-도피주의, 세속주의

위의 말씀은 어둡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다. 주님은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신다. 첫째, 교회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므로 도피해서는 안 되면, 동시에 “세상 속의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8. 이 시대는 여호야김 왕 때이다. 당시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자들이 여호야김의 폭정에 대해 율법책을 들고 찾아가서 지적해 주었다. 그 때 여호야김 왕은 그 율법책을 찢어서 화로 불에 태워버렸다.(렘36장) 근절되지 않는 사회의 악을 보고 하박국은 어떻게 했나?(2)

고뇌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고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데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박국은 정의롭지 못한 (unjust)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unrighteous)고 느꼈다. 부정한 사회를 보고 하박국 그 다음 취한 행동은 기도였다. 고뇌 없는 기도는 무기력하고, 기도 없는 고뇌는 무의미하다.

9. 부패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죄악들은 어떤 것들인가?(2)

10. 하박국은 이 모든 현상을 간단히 줄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4)

율법이 (-powerless)하고, ()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왜곡됨.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남의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보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마7:1-2/약4:11-12

2) 마18:15-17/갈6:1

고백자, 비난자가 아닌 기도자가 되라.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2) 군사독재 시절, 거리에 나가 돌을 던지며 데모하던 청년들과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던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옳은가? 교회나 사회의 구조적인 부정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난이나 비평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끝까지 기도자로 남아야 한다.

1.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사45:1-13, 18)
2. 그런데 이 세상의 실상은 어떠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엡2:2-3) 이런 일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3. 하박국의 첫째 고민이 무엇이었는가?(1:1-4)
4. 그 고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이었는가?(1:5-11)
5.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첫 반응은 어떠하였는가?(1:12)
6. 하박국의 두 번째 불만은 무엇이었는가?(1:13-17)

하박국의 첫 번째 고민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공의도 짓밟고 각자기 죄를 지으면 형편없이 사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바벨론)를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박국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박국의 두 번째 고민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13)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 받아 마땅한 건 사실이나, 그걸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사람을 쓰신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도 바벨론 보다야 착하지 않은가? 왜 더 악한 자를 쓰셔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가하는 것이었다.

7. 그렇게 불만을 쏟아놓은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2:1)
8. 커피 한 잔 값의 0.5%만이 아프리카 커피 재배 농장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 하는가?
9. 시37:1-11절을 읽어보자.

* 불의한 자, 또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

1. 하박국의 첫 번째 고민과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1:1-4/5-11)

2. 하박국의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었는가?(1:13-17)

3.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 갈대아(바벨론)도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멸망당할 갈대아(바벨론)의 죄악상이 어떠하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4-19)

4.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마저도 그 불의를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하는가?(4)

하나님/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고민

택한 백성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내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고, 더 불의한 자가 더 불의한 자를 치게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의 핵심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이런 불의를 묵과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고민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고민인 셈이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만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하는 고민으로 움부짚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해야 한다.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겸손히 답을 간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헛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불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Living by Faith)

5.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3:14-15)

머리를 들어 구리뱀을 그냥 바라보기만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처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예수가 구원을 주지 못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 구원이다.

6.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13-14)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1) 하나님의 심판 때문: 의로우신 하나님, 눈이 정결하여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하늘로 좇아 임할 것이라고 했다.(창1:18)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혹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심판의 벌이며 우리는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야 한다.

2)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되고 현실을 보면 도무지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새마음호 열차는 노량진역에는 서지 않는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7. 13-14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성전(우리 가운데/ 이 땅에)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 예배당 건물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분도 아니다. 불의를 언제까지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은 담대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의 태도로 제 멋대로 오만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며, 의를 철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그 날, 우직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다 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8. 시편37:7-8절을 읽어보자.

* 1절의 행악과 8절의 행악이 같은 단어임을 기억하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불의도 심판하시지만 세상의 불의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하나님이시다. 혹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의를 숨기거나 계속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2.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고난이 있는가? 의롭게 살려 하다가 받은 핍박이 있는가? 믿음의 원칙대로 행한 나의 의에 대한 보상과 불의한 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혹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직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자.

지난 과 복습하기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고백과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하박국은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였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들어 알게 된 그 순간 그의 인생관도 송두리째 바뀌었다. 고민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1.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답을 얻은 하박국은 어떤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가?(3:1-19)

1) 2(기도)

2) 16-19(찬송)

2.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가?(3:2)

3.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3-15)

4.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3:2, 16-19)

5. 불의를 행하는 나라들, 특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반응은 어떠했는가?(16)

6.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기쁨이 어떠한 것이었는가?(17-19) 그의 기쁨의 근원, 이유가 무엇인가?

7.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며, 슬픔을 이길 기쁨, 다툼을 없앨 평화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18, 눅10:20)

8.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 파도를 잔잔케 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는 찬송이 있는가?